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청년농 지원 강화 소통간담회

✎ 이홍섭 기자 | ⓒ 승인 2025.02.25 13:53

청년농업인 어려움 청취 및 농지지원 제도 개선 방안 논의

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청년농업인들과 소통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제공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(지사장 이돈문)는 2월 24일 지사 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농지지원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으며, 농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등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.

성주지사는 지난해 '맞춤형농지지원사업' 및 '농지임대수탁사업'을 통해 39개 농가에 23ha의 농지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도왔다.

올해부터는 △선임대후매도사업 △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,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계획이다.

한국농어촌공사 이돈문 성주지사장은 "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"이라며 "이번 소통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겪는 문제점을 파악하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한편 성주지사는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'2025년 선 임대-후 매도사업'의 1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.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(www.fbo.or.kr)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(1577-7770)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.